

전라북도 내 노인복지시설의 실태 분석

A Research for Ag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ollabuk-do

유옥순* 조재경**
Ryou, Ok soon Cho, Jae kyung

Abstract

As the rate of the elderly is proportionally increasing in society, the demands of this group and the services pertaining to them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improved services is in relation to national income,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iques and the interests of elderly. Therefore, the demand for ag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management of them is increasing.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types and states of aged social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revised aged social welfare law in 2008. Following this research, The Social Welfare Corporation is the highest management level. To date the establishment of more infrastructure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0. There are many small facilities and a few large facilities.

Keywords: elderly, aged social welfare facilities, social welfare corporation

주요어: 노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환경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인구는 이미 2000년에는 340만명으로 7%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529만명(10.8%), 2020년에는 766만명(15.4%), 2030년에는 1161만명(23.6%)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된지 2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고령사회가 될 것이며 30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듯 고령사회의 진입을 문전에 두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실버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노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연장으로 복지시설도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지역별 시설 설치 현황을 2008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거 실태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2008년 7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2009))을 기준으로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시설별 상황은 시설의 운영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전라북도는 전국의 노인 비율인 13.2%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의 비율인 19.1%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순으로 조사되어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조사하는데 전라북도가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었다.

II. 선행연구고찰

국내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선행연구고찰은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논문을 내용분석하거나,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주거및실내계획전공 교수

**정회원, 군산대학교 가정학과 주거및실내계획전공 석사과정

노인복지시설 내용분석 연구 중, 이정화 외(2006)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노인관련 연구의 수량적 변화와 시대별 흐름에 따른 경향을 정리하여 분석 하였다. 변혜령 외(2008)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홍경표 외(2009)에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으로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인의 생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설들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시설 유형을 제시하였다.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흐름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 전명화 외(2007)에서는 노인양로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과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는데,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소한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선 외(2007)에서는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현황 등을 비교한 결과, 노인복지법에서는 두 시설의 설치기준이 비슷하였고, 편의증진법에서는 설치기준이 같았다. 사례조사에서는 면적이거나 공간구성 등의 차이가 없었다. 변혜령 외(2008)는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특성을 유형과 형태, 입지조건, 위치 등에 따라 비교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III. 이론적 배경

1. 노인복지시설 종류

2008년 노인복지법이 개정(표1참조)되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무료, 실비, 유료의 개념이 없어지고 하나의 시설로 통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각각 신설되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바뀐 내용이 없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로 바뀌었고, 방문목욕서비스가 신설되었다.

표 1. 노인복지시설 변경 전후

시설종류	변경 전	변경 후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신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신설)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9노인복지시설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정의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르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이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인휴양소는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고,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VI. 조사결과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수가 적어 양로시설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양로시설

① 운영주체

양로시설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 법인이 가장 높은 비율(57.1%)이며 개인(35.7%), 종교(7.1%)의 순이다.

② 설치년도

양로시설의 설치년도는 90년 이전에 28.6%이고 90년대에 14.3%인데 반해, 90년대 이후에는 57.1%로 과반수가 200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③ 시설소재지

양로시설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익산과 완주 지역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④ 입소노인수

양로시설의 입소노인 수는 10명이하의 소규모의 시설(35.7%)이 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1-50명이 입소된 중·소규모의 시설 순이다.

2. 의료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노인전문병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을 조사하였다.

1) 노인요양시설

① 운영주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45.9%이고, 개인이 41.0%로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설치년도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년도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급속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특히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08년에는 높은 비율(33.6%)의 노인요양시설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③ 시설소재지

노인요양시설의 소재지는 전주(22.1%)가 압도적으로 많

고 그 외 익산(15.6), 군산(13.1%), 김제(13.1%), 남원(8.2%), 정읍(7.4%) 등의 시 단위의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④ 입소노인수

노인요양시설은 10-30명이 입소한 시설의 수가 38.5%로 가장 많고 31-50, 51-70명이 입소한 시설의 수는 같은 비율로 26.2%이다. 따라서 10-70명이 입소한 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90.9%를 차지하고 있다.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① 운영주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주체는 개인이 85.7%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는 사회복지법인(10.7%)과 종교단체(3.6%)가 있다.

② 설치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0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6년에 14.3%가 증가하다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08년에는 67.8%로 급증하였다.

③ 시설소재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소재지는 익산이 28.5%로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 전주 17.8%, 김제 14.3%, 남원 10.7% 순이다. 이는 시단위의 큰 도시에 주로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④ 입소노인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은 전체 5-9명이 분포한 가운데 9명이 생활하는 곳이 67.9%로 가장 많고 8명이 14.3%를 차지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단위로 되어있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에는 노인휴양소는 없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설치되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1) 노인복지관

① 운영주체

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58.8%이고 자치단체는 23.5%로 사회복지법인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② 설치년도

노인복지관의 설치년도는 2000년 이전에 23.5%였고 2000-2003년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29.4%이다. 2004-2008년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47.1%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

③ 시설소재지

노인복지관의 시설 소재지는 전주가 6개로 35.1%를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1개씩만 분포되어 있다.

2) 경로당

경로당의 소재지는 대부분 비슷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정읍(10.3%), 익산(9.6%), 김제(9.5%) 지역에서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노인교실

노인교실의 소재지는 익산이 22.8%로 가장 높았고 전주가 20.7%, 정읍이 10.8%로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전주와 익산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로 이루어졌는데 전라북도에 설치된 단기보호서비스는 빈도 수가 적어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 방문요양서비스

① 운영주체

방문요양서비스의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60.6%)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개인(26.6%), 종교단체(10.7%) 순이다.

② 설치년도

방문요양서비스의 설치년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08년에 55.3%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③ 시설소재지

방문요양서비스의 소재지는 전주(19.1%)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익산(12.7%), 남원(9.6%)의 순이다. 이는 새롭게 신설된 시설이라 큰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야간 보호서비스

① 운영주체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운영주체는 개인이 6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법인(15.6%), 종교단체(12.5%)의 순이다.

② 설치년도

주야간 보호서비스는 2004년도에 12.5%, 2007년 18.8%, 2008년에는 전체 시설의 53.1%를 차지하였다.

③ 시설소재지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소재지는 전주(31.1%), 익산(15.6%), 남원 순창(9.3%)의 순이다.

3) 방문목욕서비스

① 운영주체

방문목욕서비스의 운영주체는 개인이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로 복지재단 같은 곳이며 종교, 사회복지법인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② 설치년도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의 설치년도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1개의 시설뿐이었는데, 2000년 이후 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인복지법이 바뀐 2008년에 급증하였다.

③ 시설소재지

방문목욕서비스의 소재지는 고창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로는 김제, 임실, 장수 등이 10.0%의 비율로 분포 되어 있다.

V. 결 론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주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 서비스만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았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였다. 그 외로는 종교단체와 자치단체 등이었다.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설치년도는 전체적으로 2003-2004년을 기점으로 설치 빈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08년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와 전체시설의 과반수가 신설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시설소재지는 대부분의 시설이 전주, 익산, 완주, 군산 등의 큰 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노인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었다.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노인 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노인의 수가 많은 시설도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노인수가 9명 이하로 소규모 단위로 되어 있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 전라북도도청, 도정현황통계시스템 <http://stat.jeonbuk.go.kr/>
3.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4. 이정화·이연숙·곽윤정·이소영·김미선(2006), 노인을 위한 환경계획 디자인분야 국내 연구의 흐름 분석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8(1), 244-249
5. 변혜령·정미림·김대년·윤영선(2008),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국내연구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9(2), 93-103
6. 홍경표·장준호(2009),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유형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회의논문집, 423-435
7. 전명화·황은경(2007), 우리나라 노인양로시설의 실태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9(1), 43-147
8. 정상선·전명화·박영기(2007), 노인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특성 비교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7(1), 283-286
9. 변혜령·윤영선·김대년·정미림(2008),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유형, 위치, 주변환경에 따른 건축특성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11) 3-12